

충주 미륵대원지 베일에 싸인 고려 시대 석굴사원 터

월악산 준봉으로 둘러싸인 험준한 산골짜기에 조성된 미륵대원지는 예로부터 중원이라 불렸던 충북 충주의 문화를 대표하는 유적이다. 과거의 영광을 짐작케 하는 폐사지에는 미륵대불을 비롯해 석탑, 석등, 당간지주, 귀부, 초석들이 널려 있다. 몽골군 침입 때 절이 불타 인제, 누구에 의해 창건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려 초기의 석굴사원으로 추정된다.

글 이창호 기자 · 사진 이진욱 기자





1 말을 묶어 둔 마방, 나그네들의 숙소인 역원의 건물 터가 남아 있는 미륵대원터. 2 높이 138cm, 최대 너비 118cm의 대형 화강암 불두. 3 미륵대원 돌은 거칠고 뭉툭하다. 4 자연석을 다듬어 만든 돌거북. 5 폐사지에서 발굴된 가공하다 만 석재들.



충주에 있는 석굴사원 터인 미륵대원지(彌勒大院址)는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크고 작은 옛 절터 중에 베일에 가린 폐사지(廢寺址)다. 하늘재와 지름재 사이에 위치한 미륵대원은 순수 불교사찰의 성격 외에도 소백산맥을 넘나들던 관리와 말이 쉬어가던 숙소 기능을 해온 것으로 짐작된다. 미륵대원지는 충주와 문경을 잇는 하늘재 들머리에 자리잡고 있다. 계립령(鷄立嶺)·마목현(麻木峴)·한훤령(寒暄嶺) 등으로도 불렸던 하늘재는 삼국의 북진과 남진의 통로였던 군사요충지로 우리 땅에서 처

음 생긴 백두대간 고갯길이다. 삼국사기에는 '아달라왕 3년(156)에 계립령 길이 열렸다'고 전해진다. 신라는 백두대간 등줄기에 하늘재를 개척함으로써 비로소 한강 이북으로 향하는 숨통을 열 수 있었고, 후삼국 시대에는 궁예가 상주를 치러 가면서 이 고개를 넘었다. 망국의 한을 품고 금강산으로 가던 신라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와 누이인 덕주공주도 이 고갯마루에서 쉬어갔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특이하게 충주 방면의 마을 지명이 '미륵리'이고

경북 문경 쪽 마을은 '관음리'다. 불교에서 미륵은 구원을 뜻하고 관세음보살의 약칭인 관음은 자비로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는 부처님을 말한다. 즉 관음신앙이 '현세'의 고난에서 구원받기 위한 것이라면, 미륵신앙은 '미래'에 중생들이 구원받기 위한 것이다. 하늘재를 오가던 길손들은 미륵과 관음을 모두 만날 수 있었다. 폐사지 옆에는 역원(驛院) 터가 남아 있다. 미륵대원처럼 이름 뒤에 '원'자가 붙은 곳은 역원 역할을 하던 곳으로 고려 때는 사찰에서 담당했다.

현재 미륵대불(석조여래입상, 보물 제96호), 미륵리 오층석탑(보물 제95호), 석등, 당간지주 등 중요한 석조 문화재들이 남아 있다. 1970년대 발굴 당시 미륵당(彌勒堂), 미륵당초(彌勒堂草), 원주(阮主) 등의 글자가 새겨진 기와편이 나와 석굴사원의 이름을 '미륵대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원에 우뚝 서 있는 거대한 미륵불

중부내륙고속도로 괴산 나들목으로 나와 597번 지방도를 타고 수안보온천을 지나면 하늘재



1 탐방객이 미륵대불 앞에서 예불을 드리고 있다.
2 미륵대불 좌우와 뒤 3면 석축에 조성된 감실.
3 오층석탑의 옥개석 받침과 직선의 추녀는 신라시대 석탑의 양식을 따른 것이다.

서쪽 아랫마을인 미륵리다. 마을 입구의 주차장을 지나 10여 분쯤 걸으면 고즈넉한 폐사지와 마주한다.

미륵대원지는 당간지주와 석등, 오층석탑, 그리고 미륵불이 남북 일직선상에 늘어선 단탑식 가람배치를 이루고 있다. 미륵대원지 초입에는 깨어진 당간지주가 바닥에 쓰러져 있다. 당간지주는 깃발을 매다는 장대를 고정하기 위한 장치로 보통 사찰의 입구에 세워 신성한 지역임을 나타낸다. 규모가 꽤 큰 당간지주에 연화문이 새겨져 있는데, 미륵대원지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자연석을 다듬어 만든 거북 모양의 비석 받침돌인 귀부는 국내 최대 규모이다. 해학적인 형태의 돌거북은 여타 귀부들과는 달리 거북이 문양도 없고, 거칠고 뭉툭하다. 하지만 목을 길게 쪽 뺀 거북이는 앞발을 힘차게 내딛고 있고, 어깨에는 아기 거북이 두마리가 기어오르는 모습을 새겨놓았다. 은근한 해학으로 미륵신앙을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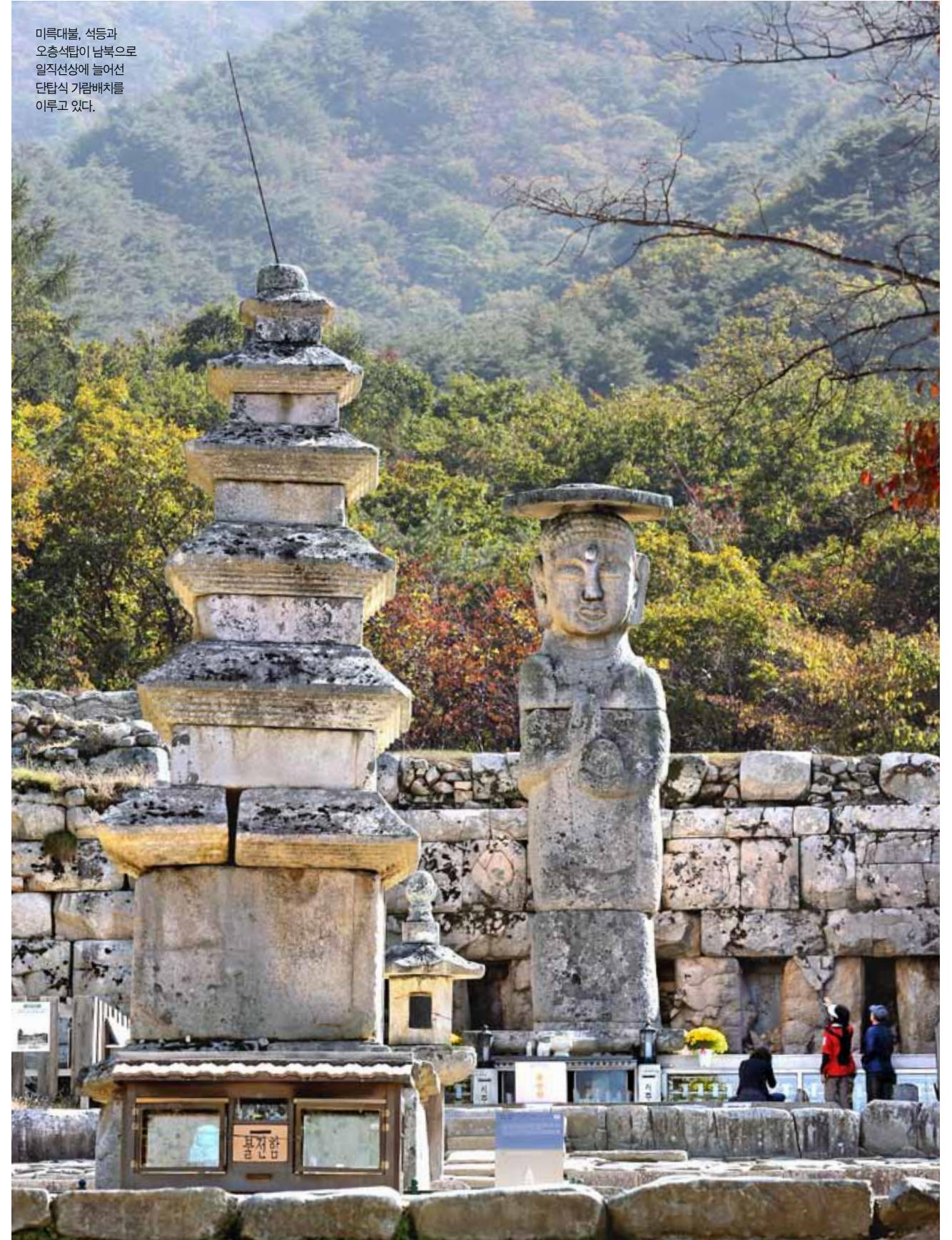
오층탑은 단순하면서도 수직적인 형상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기단이 자연석인 오층석탑은 높이 6m로 단층기단 위에 5층의 탑신을 세웠으며 상륜부에는 노반과 복발, 찰주가 남아 있다. 석탑의 상층 옥개 중심에 꽂는 철제 기둥인

찰주가 어떻게 천년 세월을 견뎌왔을까 생각해 본다.

미륵대원지는 개울을 중심으로 서원과 동원으로 나뉜다. 당간지주와 귀부, 석탑과 석등 등이 있는 곳이 동원, 다리 건너 바윗돌이 있는 곳이 서원이다. 자연 암반 위에 지름 1m쯤 되는 둥근 바위가 올려져 있는데, 고구려 온달장군이 가지고 놀았다는 공깃돌이라는 전설이 내려온다.

오층석탑 바로 위의 팔각석등(유형문화재 제19호)은 전체적으로 8각을 이루는 통일신라 양식의 석등이다. 사각형 지대석과 연화대석은 자연석으로 만들었는데, 연판은 단엽(單葉) 8판복련(八瓣覆蓮)이며 간주석은 아무런 장식이 없는 8각석주(八角石柱)다. 석등의 불을 켜는 화사석을 통해 미래세계를 구원하러 온다는 미륵불의 미소를 볼 수 있다.

돌로 석실을 만들고 그 위를 목조지붕으로 덮는 형식의 석굴사원인 미륵대원은 현재 목구조는 남아있지 않으나 주존불인 미륵대불이 서 있다. 석굴은 인도나 중국처럼 자연 암반을 파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평지에 6m 높이로 석축을 쌓고 흙으로 메운 축조석굴이다. 석불을 둘러싼 ‘ㄷ’자형 감실에는 원래 조각상들이 끼워져 있었으나 몽골군 침입 때 대부분 불타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미륵대불, 석등과 오층석탑이 남북으로 일직선상에 늘어선 단탑식 가람배치를 이루고 있다.



당간지주에 새겨진
연화문은 미륵대원지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1

- 1 고려 시대의 사각 석등.
- 2 미래세계를 구원하러 온다는 미륵불이 미소를 짓는다.
- 3 고구려 온달장군이 가지고 놀았다는 공깃돌.



2



3

화강암 5개를 연결해 만든 미륵대불은 높이 10.6m의 거대한 석불이다. 둥근 얼굴에 활모양 눈썹과 넓은 코 등 미륵대불의 표정이나 영성한 옷주름 표현, 원통형 몸체 등은 고려 초기 충청 지방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지붕이 덮여 있던 석굴사원이었지만 미륵의 머리 위에 커다란 보개(寶蓋)가 얹혀 있다. 또 수 없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얼굴만 유달리 하얗고 이유가 궁금해 진다. 채광과 안개 등 그 원인에 대해 여전히 갑론을박이 있지만 밝혀진 건 없다. 우리나라 절집의 불상은 대부분 남향인데, 이 미륵대불은 특이하게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

미륵대불의 시선을 좇아 북녘을 바라보면 월악산 영봉이 올라다 보인다. 어떤 이는 이를 옛 고구려 땅을 회복하려는 고려의 복진사상이 표현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망한 옛 절터, 미륵리 미륵대불의 보개 위로 천년 세월 흥망성쇠의 허망함이 소리없이 맴돈다. 낙엽송의 바늘잎이 노랗게 물들어 사람들 가슴에 쌓이듯 폐사지에서 울림이 탐방객의 가슴을 가득 채운다. 부처님이 설파한 제행무상(諸行無常)이다. ❶

Tip

→ 김기 좋은 하늘재

미륵대원지를 빠져나와 동쪽으로 200m 오르면 하늘재 표지석과 미륵리 삼층석탑을 만난다. 도선국사의 '비보사탑설'에 의해 땅기운이 약한 곳을 보강하기 위해 삼층석탑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늘재 들머리에서 약 300m 구간은 하늘재역사자연관찰로다. 오솔길을 산책하듯 10여 분간 걸으면 폭 2m 남짓의 제법 넓은 숲길로 들어선다. 이곳부터 고갯마루(해발 525m)까지는 1.3km가 채 못 된다. 평지에 가까울 정도로 경사가 완만한데 천천히 걸어도 30분 남짓이면 하늘재 정상에 다다르게 된다. 넉넉히 잡아 왕복 1시간 30분 길이다. 충청북도가 선정한 '충청북도 자연환경명소 100선' 중 하나로도 선정된 하늘재는 삼국시대 정치·군사적 요충지였고, 민초들의 삶의 통로였다. 시기마다 이름이 달랐는데 신라시대에 계립령(鷄立嶺), 고려시대에 대원령(大院嶺)으로 불렸다. 대원령을 풀이하면 한울재가 되는데, 한울재가 조선시대로 내려오면서 하늘재로 바뀌었다. 북쪽으로 6km 떨어진 조령(새재)이 조선 초기 개통되면서 하늘재는 급속히 쇠퇴했다.